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중배, 김창국, 박성준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5층 전화: 723-5300 / 팩스: 723-5055
천리안 호텔: PSPD, 나우누리, 유넷: 참여연대 / 전자우편: pspd@soback.kornet.nm.kr /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oreanet.org/~pspd>

수 신 각 언론사 학술부/과학부 담당기자
발 신 참여연대(과학기술 민주화를 위한 모임/ 담당: 송영민: 723-5302)
제 목 과학교육의 개혁과 시민운동
날 짜 1998. 3. 12. (총 2쪽)

보 도 협 조 요 청 서

“과학교육의 개혁과 실천 방안”
-STS(과학-기술-사회)교육의 이해와 실천을 위한
작은 토론회
- 과학교육학자, 교사, 시민, 학생 등이 토론주체

일시 및 장소: 1998. 3. 21(토), 오후 4시/ 참여연대 강당(종로구 안국동)

1. 참여연대 「과학기술 민주화를 위한 모임」(대표 김환석)은 1998년 3월 21일(토), 4시, 참여연대 강당에서 “과학교육의 개혁과 시민운동”이라는 주제로 월례토론회를 개최한다.
2. 작년 12월부터 매달 셋째 주마다 열리고 있는 ‘월례토론회’는 참여연대 과학기술 민주화를 위한 모임의 회원들과 과학기술 분야의 단체와 활동가, 학자들이 참가해 과학기술 민주화를 위한 이슈에 대한 현황, 실천방안을 토론하는 행사이다.
3월 주제인 “과학교육의 개혁과 실천 방안”은 과학기술 민주화를 위한 모임의 과학교육 분과의 주요 사업계획의 하나로 현직 교사들과 과학교육학자의 발제와 토론, 학생, 시민을 포함한 종합토론의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주제 발제는 이화여대 과학교육학과에 재직중이며 ‘과학기술 민주화를 위한 모임’의 과학교육 분과장이기도 한 최경희 교수가 담당한다. 주 내용으로는 우리나라 과학교육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과학교육의 세계적인 동향이라 할 수 있는 STS(과학-기술-사회) 교육에 대해 살펴보고, 그 현재적 의미와 우리 현실에 맞는 과학교육의 모델과 이를 위한 실천적인 모색에 관한 고찰이다. 일선의 교육 주체자인 교사들과 예비교사, 관심있는 시민, 학생

에게 의미있는 토론과 과제를 줄 본 토론회에 참여를 기다립니다.(문의:723-5302/송영민 간사)

3. 그동안 참여연대 과학기술 민주화를 위한 모임의 '월례토론회'에서 다룬 주제는 "과학기술 민주화란 무엇인가", "정보화사회와 민주주의", "인간계놈 프로젝트 중심의 유전자 다양성에 관한 고찰과 시민운동"이었다.

끝